

JANUARY
2013
VOL.09

SENIOR 조선

인생을 품격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Theme of the Month

나는 시계로소이다



HUBLOT

Big Bang Gold Ceramic.
18K red gold chronograph, with ceramic
bezel. Structured rubber strap.

inside

VOL.09 JANUARY 2013 <시니어조선>은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 06 SPECIAL** 나는 시계로소이다
스티일링의 화룡점정 시계. 지름 4mm 내외에 불과한 작은 오브제이지만 왕의 권위 뜻지않은 이우리를 지닌 제품을 소개한다.
- 10 PEOPLE** 아니운서 이성민
말을 잘하기 위해선 테크닉을 익히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19년차 아니운서 이성민. 이 남자가 말하는 법.
- 12 NEW YEAR** 2013년, 그리고 나의 꿈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 각계 명사들이 지난 한 해를 평하고 올 한해 이루고픈 특별한 소망 세 가지를 밝혔다.
- 13 MOTTO** 마음을 만한 한마디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를 떠나고 만다.' 후회와 아쉬움은 떨쳐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할 명언.
- 14 MEMORIES** 그 시절 우리가 흡모했던 어린
장만옥이 스크린에 안장을 했다. 전업기수를 선한 것. 놀란 마음에 충동적으로 써내간 여배우 장만옥에 대한 단상.
- 16 LOOK** 그 남자의 컬러
남자가 가장 멋져 보일 수 있는 색깔은 바로 차콜이다. 조화롭고 자상한 중년의 신사라면 더욱 그렇다. 차콜 컬러 패션 아이템을 모았다.
- 18 MUST-KNOW** 신사의 헤어스타일 품격
멋쟁이로 거듭나고 싶다면 헤어스타일링에 공을 들이는 게 우선이다. 신사의 품격이 묻어나는 다섯 배우의 스타일을 출처본다.
- 19 HEALTH** 초간단 스트레스 해소법 7
스트레스, 피할 수 없다면 이거라.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20 BUSINESS** 리더십의 본질은 '섬김'이다
좋은 기업을 꿈꾸는 CEO라면 GWP코리아 이관용 대표컨설턴트의 말에 귀기울일 것. 리더는 왜 직원들을 섬겨야 할까.
- 21 FORECAST** 시니어 산업의 판세를 알아나라
경기 불황의 둘째마у를 고려해 이슈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시니어 산업의 판세를 읽으면 2013년 기업 경영의 해법이 보인다.
- 22 BRAND IMAGE 2013**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대상
시니어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는 지금, 시니어들의 시트 소비를 위해 '2013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대상'을 조사했다.
- 23 SPECIALIST** 신한은행 자산관리부 선부
뉴시니어 세대의 미움을 사로잡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선두에 선 신한은행 자산관리부 선부를 만났다.
- 24 FINANCE** 2013년 시니어 자산관리 키워드
노후자산을 투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도해야 한다. 금융전문가 3인이 말하는 자산관리법.
- 25 COMMUNITY** 시니어 밴드 '블루 마운틴 보이스'
2004년 결성된 아마추어 밴드 블루 마운틴 보이스, 블루그래스 음악이 좋아 뭉친 이들의 열정이 미구 분출되는 순간을 만났다.
- 26 INFOPACK** 눈에 띠는 1월 소식
주억의 단팥죽부터 세계에서 가장 미니멀한 오디오 앰프까지, 새해를 웃으며 시작하게 할 몇 가지 아이템. 모르고 지나가면 후회한다.
- 27 CULTURE** 이달의 문화
미국 인상주의 특별전, 미카엘 하네케의 새 영화, 얼른 그리모의 피아노 리사이틀 등이 겨울을 따뜻하게 감싸줄 알찬 문화 소식.



COVER

'비뱅골드 세라믹(Big Bang Gold Ceramic)'은 위블로의 유전 컨셉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이템이다. 텐탈릴 소재의 나사를 끼운 베젤, 세라믹, 고무 스트랩 등이 어우러져 파워풀하면서 독창적인 미감을 선사한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탑재된 무브먼트, 문의 02-540-1356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팀장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연 tocl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박철진 soocoock49@naver.com
포토그래퍼 C.영상미디어
디자인 별다자인
미술교정 하주은 je4ukt@gmail.com
교열 이은실 jakup27@hanmail.net

MARKETING & ADVERTIS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86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타리티피에스
출판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아울렛,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지털단지,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동,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식경제부 주최·한국생산성본부 주관]
보험업계 최초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질병으로 인한 장애까지 보장되나요?

병원비는 보험으로 해결했다. 퇴원후 장애가 남으면?

장애의 원인 55.1%가 질병으로 인한 장애(출처: 보건복지부 통계, 2011)

길어진 인생, 질병과 장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병원비는 기본, 질병으로 인한 장애까지
삼성화재 수퍼플러스
통합 보험 | 사고보장 | 질병보장 | 장애보장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하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구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여 지급금을 합하여 1회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가sell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WATCH

나는 시계로소이다

남자들에게 시계란 그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여자들이 디자이너 슈즈에 열광하듯 남자들의 궁극적 아이템은 시계라 할 수 있다.
스타일링의 화룡점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해주는 것.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해준다'는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말처럼
굳이 직업과 신분을 말하지 않아도 손목 시계만으로 상대방의 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지름 4mm 내외에 불과한 작은 오브제지만, 시계는 과학이 담긴 하나의 예술품이라 해도 무방하다.
명품 시계를 만드는 워치메이커들은 시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무브먼트를 비롯해
혀를 내두를 만한 기술력과 세공 기술, 예술가의 작품 못지않은 미감이 담긴 디자인 등으로
감탄과 감동을 자아낸다. 한 번 보고 나면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
시계 애이를 하게 할지도 모를 베스트 브랜드 아이템을 소개한다.



바쉐론 콘스탄틴 말테 스몰 세컨즈

1755년 등장한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계 브랜드. 오랜 역사와 더불어 최정상급 시계 기술과 철저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브먼트 부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팬토그래프를 최초로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야금술, 금속 제조, 깎는 기술 등을 통해 시계 기술의 진보에 앞장서왔고, 숙련된 장인들이 100%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를 살펴보면 상장적인 십자가 형태가 눈에 띠는데, 이는 1880년 상표 등록한 말테 크로스(Malte Cross). 원래 배럴을 덮는 덮개였으나 지금은 다이얼의 패턴, 스트랩, 버클 등 곳곳에서 말테 크로스를 볼 수 있다.

토노 형태의 말테 스몰 세컨즈는 시, 분 그리고 스몰 세컨즈만 보여주는 절제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이다. 12시 방향과 6시 방향의 시 표시점만 로마 숫자로 표기하고, 갈색 악어 가죽 스트랩과 말테 크로스 핑크 골드 버클이 어우러져 전통적인 시계의 분위기와 심魄를 한 세련미가 느껴진다. 크기 36.7 x 47.6mm, 바쉐론 콘스탄틴 4400AS 무브먼트.



VACHERON
CONSTANTIN
Malte Small Seconds

피아제 구버너 크로노그래프

1957년 두께 2mm의 세계에서 가장 얇은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 9P, 1960년 두께 2.3mm의 세계에서 가장 얇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12P를 내놓은 피아제. 1874년 스위스 라코토페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된 피아제는 시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곳이었던 만큼 울트라 신 무브먼트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후 무브먼트뿐 아니라 시계 제작에도 참여한 피아제는 1957년 남성 시계 '엠파리도'를 비롯해 오닉스, 오펠, 코럴과 같은 스톤을 다이얼(문자판)로 활용한 주얼리 시계 등을 선보였다. 남성들을 위한 블랙 타이 컬렉션 라인으로 출시된 구버너는 건축적 구조미와 기술력이 돋보이는 제품. 원형 케이스, 타원형 다이얼 개방부 그리고 다이얼 가운데 자리한 원형 등 바본적이 윌헬름과 티원형이 조화를 이루 케이스 디자인은

정교하고 균형 잡힌 건축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구버너 크로노그래프에 장착된 피아제 자체 제작 무브먼트는 초침, 시, 분과 더불어 세컨드 타임 존 디스플레이, 6시 방향의 날짜 표시 기능을 작동시킨다. 지름 43mm, 882P 초박형 기계식 셀프 외인딩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50시간 파워리저브.

TIP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flyback chronograph)는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움직인 다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침이 12시 제로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움직이는 기능. 일정한 시간을 연소해서 충전할 때 유용하다.

Piaget Gouverneur
Chronograph



The image features a Hublot Aero Bang Gold watch as the central focus. The watch has a distinctive orange-toned case and a black dial with multiple sub-dials and a date window. It i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a Gothic-style arched window with intricate stonework and small statues. In the top right corner, there is handwritten text in cursive script: "HUBLOT" on the first line and "Aero Bang Gold" on the second line. Below the watch, on the right side, is a vertical column of Korean text. At the very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horizontal line of text.

HUBLOT
Aero Bang Gold

위블로 에어로 뱅 골드

고무 소재의 선두 격인 위블로는 처음으로 천연 고무 스트랩을 제작, 시계에 적용했다. 고급 시계와 고무 스트랩, 이 둘의 조화가 쉽게 연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고무 소재의 가볍고 견고한 기능성과 특유의 미감이 어우러진 위블로 시계는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착용 가능하고, 멋스러우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미니멀리즘한 시계를 만들겠다”는 설립자 카를로 크로코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것. 1980년 선보인 위블로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닌 명품 시계 브랜드와 비교하면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그러나 ‘고급 스포츠 시계’의 대표 주자로 오트, 승마, 폴로 등 럭셔리 스포츠를 즐기는 로열 패밀리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꼽힌다.

신호하는 브랜드로 꼽힌다.
스타일리시한 케이스에 무브먼트가 훤히 보이는 스켈레톤
다이얼의 에어로 뱅 골드는 18K 레드 골드 소재의 베젤
위에 위블로 고유의 H모양 나사, 스틸 및 캐블러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어우러진 제품. 3시 방향의 30분계 크로노그래프,
6시 방향의 12시간계 크로노그래프, 9시 방향의 영구 초침
크로노그래프가 장착되어 있다. 지름 44mm, 셀프 와인딩
스켈레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42시간 파워리저브.

Breguet Heritage
Collection



IWC 포르투기즈 퍼페추얼 캘린더

실용적인 기능과 간결한 디자인, 많은 이들이 IWC를 선호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1885년 디자일 방식으로 시와 분을 보여주는 최초의 회중시계를 소개했고, 이후 1936년 파일럿, 1939년 포르투기즈, 1940년 빅 파일럿 등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특유의 컬렉션을 차례로 선보였다. IWC의 퍼페추얼 기술은 최초의 4자리 연도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창과 2499년까지 윤년을 포함해 정확하게 세팅된 퍼페추얼 캘린더(영구 달력), 577년이 지나도 그 차이가 하루를 넘지 않는 문 페이즈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찬사를 받은 바 있다.

IWC가 가장 자랑하는 모델인 포르투기즈 퍼페추얼 캘린더의 새로운 버전은 두꺼운 베젤로 더욱 시선을 사로잡으며, 로즈 골드 버전은 5N 수준의 레드 골드 케이스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12시 방향에 위치한 문 페이즈는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관측 가능한 두 가지 달의 형상을 담아낸 더블 문 페이즈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퍼페추얼 캘린더 시스템이 결합된 오토매틱 무브먼트, 7일 파워리저버.



IWC Portuguese
Perpetual Calendar

브레게 헤리티지 컬렉션

투르비옹의 기원, 워치 메이킹의 살아 있는 역사, 유럽 뒤흔든 명사들을 매혹시킨 최고의 현시를 238년의 역사를 지난 브레개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스위스 뇌샤텔 출신의 아브라함 루이 브레개는 최초의 오토매틱 시계(두 개의 태엽과 진자를 가진 스크리프 와인딩 퍼페추얼 워치)를 선보이면서 혁신적인 시계 생산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1783년에는 미니트 리피터 시계의 핵심인 차임을 올려주는 '공 스프링(Gong Spring)'을 무브먼트 외곽으로 깊어지는 형태를 고안하고, 1786년에는 다이얼을 길로세 문양으로 대카레이팅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유럽 왕실과 상류층에서 선호했는데, 니콜레옹, 마리 앵투아네트, 윈스턴 처칠 등이 대표적이다.

헤리티지 컬렉션은 완벽한 고난이도 기술을 보여주는 토노 형태의 케이스 디자인에서 18세기 말 스타일의 브레개 이미지를 고스란히 표현한 모델이다. 길로세 패턴이 웨이브 모양으로 멋스럽게 새겨진 다이얼, 6시 방향에 러닝 세컨즈(초침)를 알려주는 인덱스와 핸즈가 자리 잡은 디자인은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준다. 크기 29.6x35mm, 스크리프 와인딩 무브먼트.

TIP 투르비옹(Tourbillon)은 1801년에 브레개가 최초로 개발한 별론스 이스케이프먼트 시스템(Balance Escapement System)으로, 지구의 중력과 작용 위치 등 무게 중심에 따른 시간의 오차를 줄이는 기술이다.

ROGER DUBUIS
Excalibur 42 Automatic



Ballon Bleu de
Cartier Extra Flat

좋은 시계는 남자의 품격을 상징한다.
휴대폰이 아닌 시계로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예거 르쿨트르 듀오미터 퀸텟 루너

예거 르쿨트르는 시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100% 자체 생산하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다. 1833년 양트완 르쿨트르가 무브먼트를 만드는 작은 공방을 설립하면서 역사가 시작된 만큼, 현재까지 제작한 무브먼트가 1200여 종을 넘는다. 2007년 선보인 듀얼 월 무브먼트는 하나의 태엽통에서 독립된 2개의 배럴에 동력을 각각 저장하는 콘셉트의 획기적인 아이템, 1개의 동력은 이스케이프먼트와 밸런스 훔에 동력을 공급하고, 또 다른 배럴은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 즉 시침·분침·초침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 달의 모양과 문 에이지(Year Age)를 표현하는 기능에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

문 페이즈 기능과 오픈워크 디자인의 다이얼을 더한 듀오미터 퀸텟 루너는 듀얼 월 콘셉트로 두 개의 독립된 동력을 저장하여 시간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세계 최초로 크로노그래프가 아닌 시간을 1/6초 단위까지 나타낸다. 다이얼을 정중앙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은 문 페이즈(Moon Phase)와 문 에이지, 날짜를 나타내며 오른쪽은 시간을 표시한다. 지름 42mm, JLC 인하우스에서 만든 칼리버 381, 50시간 파워리저버



Jaeger-LeCoutre
Duometre A
Quantieme Lunaire

PEOPLE

아나운서 이성민 이 남자가 말하는 법



이성민 아나운서는 1995년 KBS 21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현재 KBS 아나운서실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6시 내고향', '역사자료', '여성공감' 등을 진행했고, 대선 후보 토론회나 대통령 취임식 같은 역사적 현장에서 중계방송을 한 바 있다. 지금은 KBS 제1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24시를 진행하며 백석예술대학 겸임교수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윌리엄 포그너의 미국주의>,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7가지 설득법>, <대통령의 설득법> 등의 책을 펴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단지 기술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당신은 틀렸다. 19년 차 아나운서 이성민에 따르면 말을 잘하기 위해선 테크닉을 익히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최근 출간한 화법 책에도 그는 썼다. '화려한 언변도, 논리로 무장한 언어도 아니다. 서툴더라도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전달력을 가진 이가 진짜다'라고.

얼마 전 KBS 아나운서 이성민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7가지 설득법>과 <대통령의 설득법>이라는 두 권의 화법 책을 잇따라 펴냈다. 이들은 분명 다른 성격의 책이지만, '리더'와 '말'이라는 공통된 화두를 던진다. 두 권의 책에는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경제·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대처나 치칠 같은 역사 속 지도자들의 설득법이 담겨 있다. 각각의 리더가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치밀히 탐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나운서는 왜 리더의 화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 이는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도 모른다. 그는 다른 아닌 말을 업으로 삼은 아나운서가 아닌가. 그리고 더하자면, 그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 오랜 시간 스스로 말 잘하는 방법을 터득해온 것이다.

본질을 담는 그릇

이성민 아나운서를 최근 가장 흥분시킨 이는 단연 오바마인 것 같다. 얼마 전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써낸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로부터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거 2주 전만 해도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극적으로 재선에 성공했어요. 선거 전 세 번의 TV 토론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롬니에게 꼼짝없이 당한 오바마가 말이죠." 그에 따르면 토론은 상대와의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론을 지켜보는 대중을內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토론 내내 롬니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오바마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렸다. 이런 과정에서 오바마는 자신의 편을 더욱 굳건히 다쳤음을 물론이고 상대의 반란표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 "능수능란한 케네디가 여성한 닉슨을 이기는 시대, 똑똑하고 절난 사람에게 승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토론에서 중요한 건 상대와 나를 이분할 수 있는 논점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는 누차 강조한다. 말을 잘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마음이라는 사실. "입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비어져 나오는 틈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언·실수 같은 건 애초에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평소 그의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더불어 그는 링컨의 말을 인용했다. "많은 사람을 한 동안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말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 점에서 결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 아나운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의 일화를 소개한다. 생전에 일본을 방문한 덩샤오핑이 초고속 신칸센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는 일본 관료들에게 했다는 말. "나라도 좁은데 이렇게 빨리 달려 어디를 가려는 것인가?" 이 아나운서는 덩샤오핑의 이 말은 재치나 순발력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바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라는 것.

'나'가 아닌 '너'를 위한 말

어떤 상황에서 판세를 바꾼 지도자들을 존경한다는 이성민 아나운서는 여러 인물 가운데 특히 치칠을 높이 산다. "치칠이 위대한 건 유머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머는 자기 자신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유와 깊이를 지닌 사람, 사고의 굳은 살을 지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머예요."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곧 대화의 주도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 아나운서의 설명이다. 이는 그가 가장 탐내는 능력이기도 하다.

어릴 적부터 주목받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아나운서를 꿈꿨다는 이 아나운서는 꿈을 이루고 한동안 아나운서 특유의 정돈된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아나운서 생활 13년 차에 접어들던

“
입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비어져 나오는 틈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

무렵 '여성공감'이라는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터닝포인트를 맞았다고. "주부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말만 잘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시선을 끌려면 재미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매번 '다섯 번 만 웃기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웃음)." 그는 유머에 있어서도 노력파다. 노력하면 남을 웃길 수 있다는 것 "야구를 좋아한다고 모두 이승엽이 될 필요는 없죠. 동네야구에서 나만의 플레이를 즐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중요한 건 언젠가 더 넓은 그라운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바로 그거죠."

이 시기 그의 화법도 변화를 맞는다. 과거 '나' 중심의 말하기는 차츰 '너' 중심이 되어갔다. "너 오늘 예쁘다." "너 오늘은 안색이 안 좋네." "너"에 대한 이야기는 보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물론이다. "생각해 보면 말을 잘하는 법은 분명해요. 정답은 상대를 위한,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칭찬을 원하는 이에게는 칭찬을, 위로를 원하는 이에게는 위로를." 쉬운 예로 식당에 간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싸고 푸짐하게"가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한다면 그 식당은 완벽에 가까워질 것이다. 바로 손님이 원하는 한마디 말이다. "오늘 들어온 생선이 정말 좋습니다" 또는 "생선은 오늘 별로 나까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와 같은 말. 어렵다고? 그렇지 않다. 상대가 원하는 말은 곧 내가 원하는 말과 같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잊지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은?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 다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수'라 하겠다. 물론 무턱대고 내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이성민 아나운서는 한 가지 전략을 귀띔한다.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라'는 게 그것이다. 가령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는 "언제 만날까?"보다는 "나는 2시나 4시가 좋은데, 넌 언제가 좋아?"라고 물어야 마땅하다. 이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거절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 발휘한 나름의 기지라 할 수 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작가·지망생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필사하듯이 우리도 말 잘하는 이들의 화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들의 표정이나 동작을 이해는 겁니다." 이는 이 아나운서가 오랫동안 해온 '말공부' 방법이기도 하다. 욕심 많은 그는 앞으로도 말에 대한 훈련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새해에는 그 훈련을 점검하듯 리더십이나 화법에 대한 책을 추가로 집필하고, 그와 관련한 강연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기회가 된다면 재미있는 토크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고 전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로 평생을 보냅니다. 누구나 말로써 자신을 세일즈해야 하죠. 그러니 말 잘하는 법은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시작은 어디까지나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성민 아나운서가 꿈은 말 잘하는 리더
원스런 치칠 55년을 정치인으로
군림한 치칠은 정직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에게서 느끼는 것은 노화한 정치인의 거리감이 아니라 친근감이었다. 그는 대중을 설득하는 대신 제자와 강동을 주려 했다. 김동방은 대중이 스스로를 설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넘어서 국민들이 즐겁게 웃을 수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강단에서 넘어지겠습니다."

다나카 기루에이 다나카는 일본 현대 정치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등학교 과정만 마친 출신이다. 그것으로도 그에 대한 존중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1000년의 역사 속 지도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다나카를 꼽는다. 그는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줄 알았다. "내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그러나 나는 일에 대해서는 악간의 오물을 알고 있다. 뭐든지 말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

마거릿 대처 대처의 위기는 집권 초기에 찾아왔다. 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20%에 달했다. 실업자 수는 대공황 아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도산하는 기업도 늘어갔다. 영국 전체는 대처를 비난하고 나섰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그녀는 1980년 브리튼 보수당 회의에서 "여러분은 돌아가십시오. 이 여자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제국의 연설을 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설으로써 기회를 모색한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8년은 마치 '강하고 풍족한 미국'이라는 제국의 미국 지부심 부흥 프로젝트 영화 같았다. 그는 미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국민들이 김동방을 만한 시점에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모두 정당하고 영웅적인 꿈을 가집니다. 제가 말하는 영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NEW YEAR



김성미 소콜라티에(빠드두 대표)

2012년은 제게 무척 뜻깊은 해였습니다. 국내에 소콜라티에(chocolatier)라는 직업을 알리기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지방에 '빠드두' 분원을 오픈했습니다. 빠드두는 제가 운영하는 수제 초콜릿 전문점이자 소콜라티에를 양성하는 스쿨입니다. 초콜릿을 기반으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한 오랜 꿈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2013년에 꿈꾸는 일은 첫째, 빠드두 초콜릿 학교 지방 캠퍼스 추가 설립. 기업에서 만드는 획일적인 제품과 달리 창의적인 디자인과 한국 식재료가 결합된 수제 초콜릿 문화를 국내에 널리 퍼뜨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만이 아닌 전국에 초콜릿 기술과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콜라티에에서는 직업 알리기, 초콜릿은 단순히 먹는 제품이 아니라 오감으로 보고 즐기는 제품입니다. 축제와 같은 디저트 문화이기도 하지요. 이런 문화를 이끌고 만들어내는 이들이 소콜라티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다 수준 높은 소콜라티에들이 많이 생겨나 한국 초콜릿의 수준과 개성을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해외 유명 초콜릿 학교와의 교류. 한국의 뛰어난 식재료와 서양의 초콜릿 문화가 어우러져 한국만의 독특한 초콜릿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교류하는 글로벌한 한국 소콜라티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2013년 고등학생이 되는 제 딸 역시 초콜릿과 요리 전반에 대한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엔 빠드두와 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갈 생각입니다. 한국의 초콜릿 문화를 이끄는 홀륭한 소콜라티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2013년 그리고 나의 꿈

또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이맘때면 늘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새해에 대한 설렘에 교차한다. 올해는 꼭 이루리라, 기슴속에 간직한 꿈을 떠올려도 본다. 각계 명사들이 지난 한 해를 평하고 올 한 해 이루고픈 특별한 소망을 밝혔다.

심한보 테일러메이드-아디스골프 대표

2012년은 쏟살같이 지나가 버렸네요. 2012년은 제가 50대로 들어서는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제부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라고 생각했는지… 되돌아보니 그 전성기의 첫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회사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에 있던 아이들이 돌아오며 떠나던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지요. 건강 문제로 병원 출입이 잦았는데, 그로 인해 건강을 자신하기보다는 조심하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정도 좋지만,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업과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2013년에 꿈꾸는 일은 첫째, 나만의 버킷 리스트를 완성하고 실천에 옮기기.

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골라내는 일이라 그런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조차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새해엔 반드시 리스트를 완성해

하나씩 실천해가야 합니다. 둘째, 하리둘레 2인치 줄이기. 하리 사이즈가 늘면서 이전에 좋아하던 양복을 입을 수 없게 되거든요.

올해는 반드시 목표를 이뤄 그

아끼던 옷을 다시 입고 싶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사내 캠페인 'Wellness Challenge'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출전해 수상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셋째,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Life Best Score) 간수하기. 생애 최고의 골프 스코어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현재 74타인데, 2타 줄인 72타에 도전합니다.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

2012년은 매년 그렇듯 기뻤던 일과 아쉬웠던 일이 고루 있었지요. 기뻤던 일은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의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개막에 따라 미술계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국내 미술계를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일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미술계의 불황이지요. 경기 침체와 양도스드세에 대한 부담도 미술계의 불황을 부추긴 요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이런 어려움이 점차 나아지길 바랍니다.

2013년에 꿈꾸는 일은 첫째, 짧은 작가 발굴. 둘째, 해외 시장 개척. 셋째, 중요 전시 기획 및 개최. 국내 시장의 불황에 따른 해결책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작가를 발굴해 국내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 일지요. 새해에도 국제갤러리에서는 명망 있는 여러 해외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국내 주요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변동현 주한캐나다관광청 지사장

2012년은 누구나 마찬가지 감정이겠지만,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나 싶습니다. 최근 아이들이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녀석이 세상을 보는 눈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일도 있지요. 2012년에도 아내와 같은 취미를 가지지 못한 것. 아내와 함께 하는 취미생활이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건강하고 즐겁게, 또 바쁘게 보낸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13년에 꿈꾸는 일은 첫째, 복근 되살리기.

2012년을 되돌아보면 건강을 위한 투자엔 무척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헬스클럽에 다시 등록해 열심히 복근 회복 운동을 해보려 합니다. 보디빌더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변화라도 경험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프랑스어 공부.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구사하는 이중 언어 국가입니다. 동부 지역 퀘벡 주를 비롯해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는 영어보다 오히려 프랑스어를 더 편하게 사용하고 하지요. 업무차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갈 때 프랑스어로 쓰인 간판을 보며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현지인들과 가볍게 프랑스어로 인사할 수 있도록 프랑스어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설픈가 그걸 말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외국인에게 더 큰 친근감을 느끼죠.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 나라와 사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신이 납니다. 셋째, 2013년을 행복한 해로 만들기.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이지만 올해야 말로 가장 행복한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가족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많이 읽고, 더 자주 웃고, 일도 더 열심히 할 작정입니다.

특히 2013년은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무척 비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캐나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MOTTO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할 땐 신중해라.
처음 시작이 미래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
그리고 참아야 할 일은
처음부터 철저히 참아라.
나중에 참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정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지적인 시야가 더 넓어지고
의식이 더 분명해진다.
반면 무식한 사람들은
늙어 갈수록 더 어리석어진다.
-탈루드

쉬워 보이는 일도 해보면 어렵다.
못 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놓으면 이루어진다.
쉽다고 얕볼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팔짱 끼고 있을 것도 아니다.
쉬운 일도 신중히 하고
곤란한 일도 겁내지 말고 해보아야 한다.
-채근답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빈 바퀴통에 붙어 있다.
바퀴의 효용성은 바어 있는 부분,
바퀴통의 텅 빈 공간에 달려 있다.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다.
그릇의 효용성은 바어 있는 부분,
그릇의 텅 빈 공간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집에 문과 창문을 낸다.
집의 효용성은 바어 있는 부분,
텅 빈 공간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물건은 바로 바어 있는
부분이 있기에 유용한 것이다.

-노자

오늘은 괴로움이나 후회로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날이다.
머리를 들고 산골짜기 물에
반사되는 빛처럼 번쩍이는 생각을
빛내보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꼭 붙잡아라.

-데일 카네기

인생은 한 권의 책과 비슷하다.
바보들은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차분히 읽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밖에
그것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파울

신살이 되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스무 살 때와 같다면
삼십 년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무하마드 알리

지면에 소개한 작품 '뱀'은 정혜진 작자가 특유의 위트를 더해 만든 심이자(十二支) 이미지 중 하나다. 회화, 사진, 조각의 경계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작가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기죽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 '파미'를 비롯해 똑똑하고 힘센 한국의 대표 아줌마 '찌니', 끼와 재주가 넘치는 아들 '끼'와 재물동이 엄친아 막내아들 '동이'로 구성된 가족 캐릭터 '파미 가족'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작품 판매 수익금으로 어린이 놀이터 환우를 돋는 등 예술을 통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www.facebook.com/thettamifamily

癸巳年
새해
마음에 담을 만한 한마디

서글픈 인생을 대표하는
세 마디 말은 '할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라고 한다.
새해의 매력이라면
이전의 후회와 아쉬움을
떨쳐내고 새로이 각오를
다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뱀의 해를 맞아 지난해의
허물을 벗고 다시 시작해보자.

MEMORIES

멀리 가는 길 위에 네가 있다

나를 불어 창문을 유언의 음악을 연주하는 그 골목길에

꽃잎 진복승이나무 푸른 일처럼 너는 있다

어느 날은 잠에서 깨어나 오래도록 네 사랑을 한 것이다

사랑은 나뭇잎에 거울을 끌처럼 바람 속에 오고 가는 것

때로 사랑의 사랑 속에 커커이 물려 있다가

구름의 달처럼 차는 많은 기억을 데불고 떠오르기까지

멀리 가거나 쉬고 싶은 길 위에 모두 너는 있다

꽃잎 진복승이나무들이 긴 목자석을 이루어

푸른 잎들이 오래도록 너를 읽고 있는 곳에

꽃잎 진내 청춘의 깊은,

복승이나무 그 긴 목자석 속에

- 시인 박정대의 '장만옥'



그 시절 우리가 흄모했던 여인

장만옥이 스크린에 안녕을 고했다. 원색의 치파오를 차려입고 홍콩 뒷골목을 거닐던 그녀의 고혹적인 자태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니.

우리는 아직 그녀를 보낼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은데 말이다. 놀란 마음에 충동적으로 써내려간 여배우 장만옥에 대한 단상.

한 번쯤 그녀를 흄모하지 않은 이가 있을까. 시 '장만옥'의 구절처럼,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오래도록 그녀를 생각한 청춘의 한순간이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장만옥은 무림을 호령하던 임청하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도시의 암흑기를 질주하던 오천련으로 양분된 중국 여배우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빛깔을 뽐낸다. 무렵도 누아르도 아닌 말하자면 함부로 하나의 장르에 편입시킬 수 없는 어떤 아우라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싱그러운 웃음 저편에 웬지 모를 허무가, 화려한 치장과 차림 속에 그윽한 애수가 묻어나는 여인. 그녀가 바로 장만옥이다.

화려하고 강렬한, 그러나...

1983년 '미스 홍콩'이란 타이틀로 대중 앞에 처음 등장한 장만옥은 바로 그 아름해 코미디 영화 〈청와왕자〉에 출연하며 정식으로 배우가 된다. 그리고 지금껏 자그마치 8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평균 잡아 한 해에 2~3편의 영화를 찍은 셈이다. 유년 시절을 영국에서 보냈고, 10대 후반 우연히 친척을 방문하러 홍콩에 들른 것이 계기가 되어 그저 그렇게 연예계에 발을 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그녀는 처음부터 꽤나 아무렇지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할 만하다. 정식으로 연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탓에 한동안 연기 생활이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그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두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을 그린 〈화양연화〉에서 장만옥이 맡은 '리첸'은 그녀의 그 어떤 페르소나보다 화려하고 강렬했다. 매 장면마다 꽃으로 수놓인 원색의 치파오가 그녀의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몸매를 감쌌다. 영화를 보지 않은 이라면 도무지 상상 할 수 없는 그 우아한 몸짓이란… 그러나 그 화려함 위에 덧칠된 창백한 얼굴, 물기를 머금은 눈빛, 태연을 가장한 위태로운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슬로모션으로 움직이는 화면 속 장만옥은 더 이상 조명 앞에 빛나는

타지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필모그래피가 연기의 스펙트럼을 짐작케 한다.

이 가운데 그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역시 〈첨밀밀〉이다. 진가신 감독의 〈첨밀밀〉에서 그녀가 맡은 '이요'는 마치 장만옥 그 자체인 듯 보였다. 성공의 아심을 품고 고향을 떠나 홍콩에 당도한 이요는 사랑도 외면한 채 오랜 세월을 외롭게 떠돈다. 그러나 시간의 더께가 내려 앉으면 자연히 퇴색되리라 믿었던 사랑은 되려 깊어만 가고, 결국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요와 그의 오랜 연인은 우연인 듯, 혹은 운명인 듯 거리에서 재회한다. 그 순간 이요의 처연한 얼굴 위로 등려군의 '월량대표아직십이 훌렀던가.' 당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었죠. 저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하세요라는 순정한 노랫말을, 사랑에 대한 지독한 이끌림을 장만옥은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는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에서 정점을 찍는다. 꽃 같은 시절의 아름다움이란 제목 뜻 그대로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인생의 가장 어여쁜 한때, 즉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때 그녀 나이 서른일곱.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르익어가는 배우'라는 최고의 수식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많은 대중이 〈완령옥〉이나 〈클린〉이 아닌 〈화양연화〉의 장만옥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두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을 그린 〈화양연화〉에서 장만옥이 맡은 '리첸'은 그녀의 그 어떤 페르소나보다 화려하고 강렬했다. 매 장면마다 꽃으로 수놓인 원색의 치파오가 그녀의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몸매를 감쌌다. 영화를 보지 않은 이라면 도무지 상상 할 수 없는 그 우아한 몸짓이란… 그러나 그 화려함 위에 덧칠된 창백한 얼굴, 물기를 머금은 눈빛, 태연을 가장한 위태로운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슬로모션으로 움직이는 화면 속 장만옥은 더 이상 조명 앞에 빛나는

여배우 장만옥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 앞에 떨고 있는 가련한 여인일 뿐.

유독 멜로 영화에서 그녀의 진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찌 〈첨밀밀〉이다. 진가신 감독의 〈첨밀밀〉에서 그녀가 맡은 '이요'는 마치 장만옥 그 자체인 듯 보였다. 성공의 아심을 품고 고향을 떠나 홍콩에 당도한 이요는 사랑도 외면한 채 오랜 세월을 외롭게 떠돈다. 그러나 시간의 더께가 내려 앉으면 자연히 퇴색되리라 믿었던 사랑은 되려 깊어만 가고, 결국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요와 그의 오랜 연인은 우연인 듯, 혹은 운명인 듯 거리에서 재회한다. 그 순간 이요의 처연한 얼굴 위로 등려군의 '월량대표아직십이 훌렀던가.' 당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었죠. 저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하세요라는 순정한 노랫말을, 사랑에 대한 지독한 이끌림을 장만옥은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여배우로 영원할 줄 알았던 장만옥이 작품을 고르는 데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여러 외인이 물어다준 소식은 안타까움만 더할 따름이었다. "나는 이미 아주 다양한 역할을 연기했다. 홍미로운 역할을 찾기가 갈수록 어렵다." 정말일까.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돌연 가수 데뷔 소식이 들려왔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장만옥이 말이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음반사와 활동 계약을 맺었으며 밴드까지 결성했다고 한다. 분명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단, 그녀의 가수행은 배우 생활을 완전히 접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이미 그녀의 '은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그녀의 변신을 반갑게 맞을 땐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미 몇몇 무대에서 자작곡을 열창하며 뛰어난 가창력을 입증했다는 점 또한 서글픈 뉴스에 지나지 않는다.

이쯤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녀의 은퇴 선언이 단지 싱거운 해프닝이기를. 여배우의 애교 섞인 변덕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이제 50대로 접어들었고, 그럼에도 아니 그려므로 더욱 아름답다는 사실을. 그녀의 화양연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카메라 앞이든, 무대 위든 그녀는 우리에게 예전히 여배우 장만옥이다. 그 시절 우리가 흄모했던 여인.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여인. 그녀가 맡아 열연할 다음 역할을 주목한다.

© gettyimages/multimedia

OD Musical Company, CJ E&M present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최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단 5주간의 특별공연



최고가 최고를 만나다!

대한민국 예술의 메카 예술의 전당이 2013년 개관 25주년을 기념해 선택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최고의 극장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단 5주!

한국 뮤지컬 불멸의 신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예매처 서바다운, 전회매진/전회기립 박수, 90% 이상의 유료 객석 점유율 등
공연 때마다 한국 뮤지컬 공연 기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2013년 다시 한국 뮤지컬의 기록을 다시 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1997년 브로드웨이 초연된 이후 2012년 다시 리바이벌 되었고,
독일, 일본, 영국, 벨기에, 덴마크, 러시아, 스웨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004년 한국 초연 이후, 최고의 배우들에게만
허락한 단 하나의 무대가 2013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펼쳐진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13년 1월 8일~2월 9일

기획/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 협찬 LOUN.G 후원 K160 기술보증기금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예술의전당 (02)580-1300 예매처 오픈리뷰 인터파크 옥션 yes24

Conceived by for the stage by Steve Cuden & Frank Wildhorn | Book and Lyrics by Lesile Bricusse | Music by Frank Wildhorn | Orchestration by Kim Scharnbeg
Arrangement by Jason Howland | Directed by David Swan

LOOK



▼ 올 소재 원 버튼 코트, 바이어스 처리된 테두리와 과장된 포켓이 갑작적인 매력을 물씬 풍긴다. 370만원
사방 by 랜스미어 굵은 뜨개 소재와 레더가 믹스되어 유니크한 멋을 풍기는 정감. 63만원 매들라 by 랜스미어



▲ 체크 패턴 셔츠,
캐주얼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잊지 않는다.
10만원대 S.T.듀퐁 청춘의
멋을 긴직한 하이톱 슈즈
78만원, 벌리

그 남자의 컬러

남자가 가장 멋져 보일 수 있는 색깔은 블랙도, 블루도 아니다.
바로 차콜이다. 그가 보수적이고 온건한,
동시에 조화롭고 자상한 중년의 신사라면 더욱 그렇다.

차콜(Charcoal)은 검정색에 가까운 얇은 흑색이나 목탄색을 말한다. 굳이 우리말로 풀자면 '아둡고 짙은 회색' 정도 될까. 검정색과 하얀색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차콜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단정한 이미지를 준다. 모든 색을 흡수해 안정감을 부여하는 회색 계열답게 조화로운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검정색과 하얀색 특유의 날카로움을 벼린 대신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지녔다. '중성적', '도시적'이라는 단어와도 잘 어울린다. 명도와 채도가 낮아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다. 무게감을 지닌 중년 남성의 이미지에 적절히 부합하는 색이라 할 만하다.

차콜은 대부분의 남성에게 잘 어울리는 색이다.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히 슈트에 무난하게 활용 가능하다. 차콜 컬러 슈트를 입으면 신뢰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긍정적 이미지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 차콜은 액세서리 컬러로도 널리 활용되는데, 심플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제격이다. 어떤 색과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차콜은 빨강·파랑·핑크·오렌지·바이올렛 같은 원색과 배색하면 강한 카리스마를 과시할 수 있다. 세련된 인상을 풍기는 동시에 예측 불허 컬러로 상대의 감성을 자극한다. 그 때문에 코디를 할 때는 차콜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 포인트 컬러와 배합하는 게 효과적이다.

차콜과 같은 무채색은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난하게 느껴지기 때문. 좀처럼 싫증 나지 않고 어떤 색과도 쉽게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과 관계없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것이다. 물론 차콜을 단지 무난한 색으로만 여길다면 실수다. 앞서 열거했듯 어느 컬러들이 지나지 못한 깊이가 차콜에는 있다. 다수의 브랜드에서 매시즌 무채색 계열의 아이템을 출시해 선보이는 이유다. 이제 그만 검정색이나 남색, 갈색 등의 평범하고 무미한 컬러에서 탈피하고 싶다면, 차콜에서 답을 찾아보길.

▼ 올 소재 팬츠, 적당히 떨어지는 무게감으로 품위 있는 스타일을 완성한다.
128만원 브리오니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스웨어 패턴
반지갑, 51만원 몽블랑



소품 협조: 나리마켓(02-3447-7701), 랜스미어(02-3444-1730), 몽블랑(02-3485-6627)
벌리(02-3444-1730), 빌리(02-3446-3969), 브리오니(02-540-4723), 살비토레 페라가모(02-2140-9642)
키오 아미토 by DK(02-3447-7701), 아 테스토니(02-554-4310), A/X(02-3446-7725), DKNY(02-3444-1731), S.T. 듀퐁(02-2106-3436)



▲ 화려한 스트라이프에 명쾌한 배색을 기미해 활동적인 느낌을 살린 니트. 가격미정 A/X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블루 그레이 셔츠, 20만원대 니-리치 반복적인 도트 패턴이 유머러스한 느낌을 선사하는 실크 소재 보터이, 12만5천원 살비토레 페라가모



▼ 캐시미어 소재의 라운드 니트. 너무 경쾌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캐시미어 니트는 전천후 코디네이션에 인상적이다. 52만2천400원 아 테스토니 평범한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는 스페인드 무늬 양말. 1만8천원 랜스미어



◀ 심플한 디자인의
캐주얼 패딩 점퍼.
위트를 기미한 빅
포켓이 세련된 인상을
준다. 가격미정
DKNY



▶ 올 소재 피케 셔츠.
클래식한 스타일의 피케 셔츠는
꾸미지 않은 듯 멋스러운 인상을
준다. 218만원 브리오니
티타늄 소재 인경, 포멀한
슈트와 매치하면 한층 스마트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30만원대
키오 아미토 by DK

BUSINESS

GWP코리아 대표컨설턴트 이관웅 리더십의 본질은 '섬김'이다

경영인이라면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하게 마련이다. 성인교육학 박사로 국내에 '일하기 좋은 기업'과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개념을 소개한 이관웅 씨. 그가 말하는 바람직한 기업 문화는 어떤 것일까.

기업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생존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신뢰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신뢰는 최고경영자의 말 한마디, 회사의 허울 좋은 대외 방침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그것이 사회와 고객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

"기업 대표는 일을 통해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 구성원은 일을 통해 돈을 벌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서 회사와 구성원 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일을 통해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일은 직장에서 이루어진다. 회사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개인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생산성,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관웅 대표컨설턴트의 말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이에 대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일하기 좋은 직장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춘은 1998년부터 매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신뢰경영을 실천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쌓아가고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제도로 유럽연합, 중남미, 인도, 일본 등 전 세계 45개 국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2002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정해 왔다.

"조직을 설계, 관리, 교육하는 일을 하다 보니 많은 기업을 접하게 된다. 그 중에는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호 신뢰가 깊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KT를 꼽을 수 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혁신의 틀에서 벗어나 구성원 만족이라는 균원적 차별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 만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선순환 고리를 이어간다. KT의 스마트워킹제도는 임신·육아·여성 직원 중심으로 자택·스마트 워킹 센터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으로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 지원을 해주니, 회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높은 건 당연하다."

이 외에 국내의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조직 내 유대감과 신뢰를 다지는 KB국민은행, 임직원간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KT금호렌터카,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인재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서울아산병원 등이 있다.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수

직급이 1단계 높아지면 2배의 심리적 차이가 생기고, 2단계 높아지면 4배, 3단계 높아지면 8배의 심리적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 그만큼 상사와 부하 직원이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하기 좋은 기업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부터 다르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리더로서 리더의 권위와 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 서번트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윗사람은 아래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목표를 공유하고, 성취하도록 지원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면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Serving first, leading second'. 먼저 조직을 섬기고 그 다음 조직을 이끌라는 것이다."

1989년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다고 한다. 경제가 고속 성장한 한국의 기업 문화는 소통과 존중보다는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강했고, 그런식의 경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면도 있었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조직과 개인의 신뢰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강했지만 이제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조직 중심의 사고에서 개인 중심의 사고로 변화된 만큼 직장 내 신뢰 구축을 통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GWP는 'Great Work Place'의 약자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말한다.



FORECAST

시니어 산업의 판세를 읽으면 2013년 기업 경영의 해법이 보인다

새해가 밝았으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비관적 전망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던가.

경기 불황의 돌파구를 고령화 이슈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러한 인구 지형의 변화는 새로운 시장의 출현을 동반하는데, 바로 시니어 산업 활성화다. 시니어 관련 산업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무한히 확장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2013년 국내 시니어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의 올 한 해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산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시니어 고객에 대한 인식 변화다. 기업들은 시니어 고객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많은 기업이 그동안 '시니어 마케팅'은 곧 VIP 마케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시니어 고객이 젊은 층에 비해 비교적 높은 구매력과 풍부한 소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시니어 층을 VIP 고객으로 분류해 고가의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 고가의 특정 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시니어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생활용품을 대거 출시했다. 제품군도 미용, 패션에서 취미 활동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됐다.

둘째, 대기업의 시장 참여다. 지금까지 시니어 관련 상품이 나오긴 했지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반응이 크지 않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시니어 생활용품 시장은 영세 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들이 시니어용품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을 눈여겨 볼 만하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통해 시니어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셋째, 마케팅 코드의 변화다. 노후 및 은퇴 시장의 마케팅 코드가 '공포 마케팅'에서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감성 마케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노후자금 마련이 은퇴 준비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으나 2012년에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 재정적 요소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일, 취미활동 등 비재무적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많은 기업이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은퇴 관련 마케팅 부서를 만들고, 각종 홍보·광고물을 쏟아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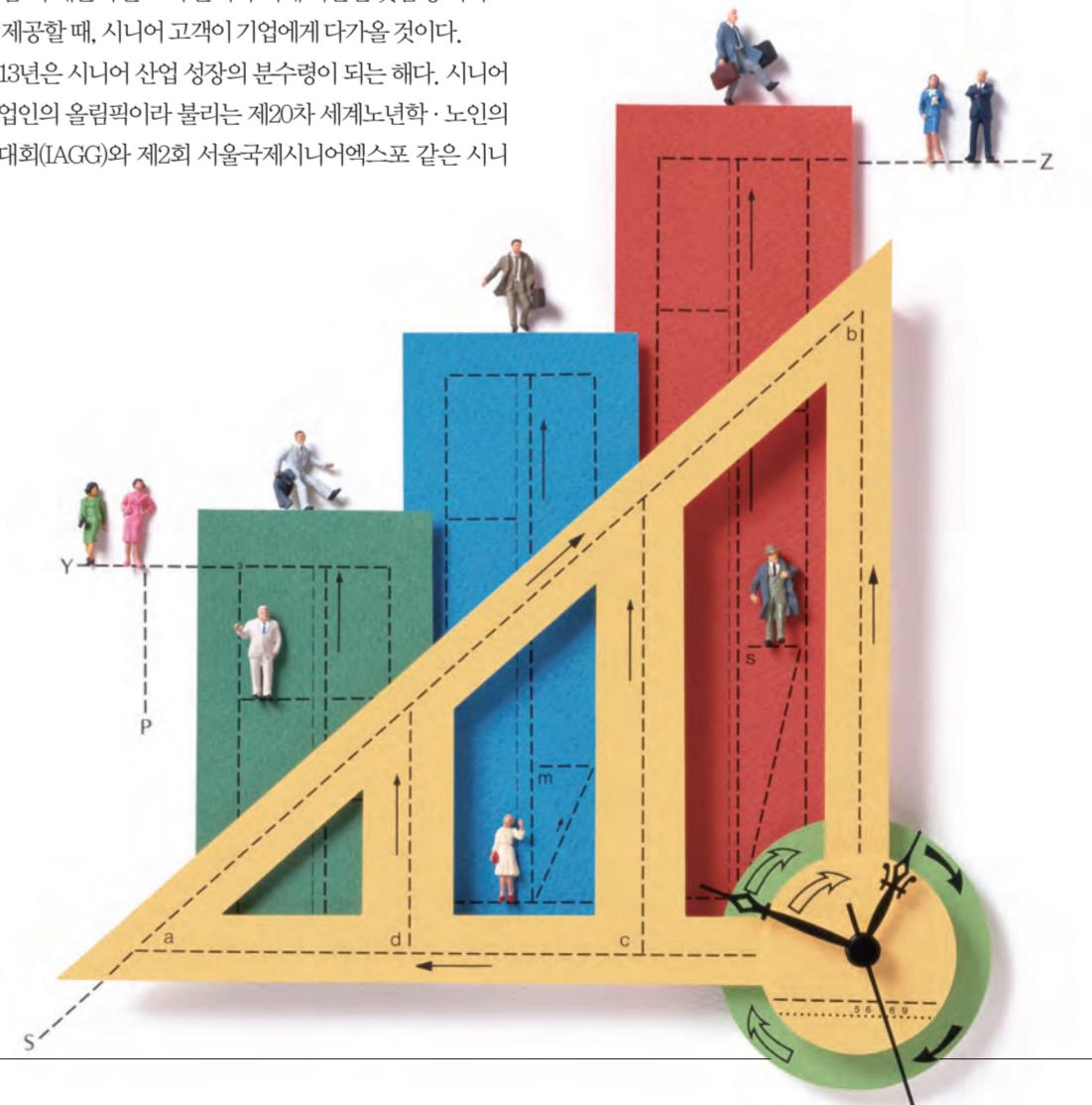
시장을 예측하고, 대비하라

시니어 산업은 2012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과 고객 모두 시장 형성의 한 축을 이루며 변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은 2013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변화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 매체에만 의존해서는 시니어 고객을 선점할 수 없다. 시니어들도 타인의 경험을 상품 선택

어 관련 굵직한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법정부적 지원 움직임도 예상된다. 물론 해가 바뀌어도 경기 침체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시니어 산업만은 예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들이 경기 불황의 돌파구를 고령화 이슈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지형의 변화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며, 시니어 시장의 크기를 키울 것이다. 많은 대기업이 시니어 시장의 가능성은 예측하며 진입 시점을 판단하고 있다. 시니어 산업에서도 스타 기업과 스타 브랜드 출현이 멀지 않았다. 2013년, 시니어 산업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해 펼쳐질 전진승부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박은경 대표는 국내 시니어 산업의 주도적인 인물.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 (주)시니어파트너즈 대표이자 세계 최대의 시니어케어 전문기업 미국 휴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의 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주)휴인스테드코리아의 대표다.



BRAND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택한 2013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대상

여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적극적 소비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니어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 이른바 '뉴 시니어'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들을 겨냥한 상품이 증가하는 이때, 시니어조선과 시니어파트너즈는 스마트 소비를 돋기 위한 '2013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대상'을 조사·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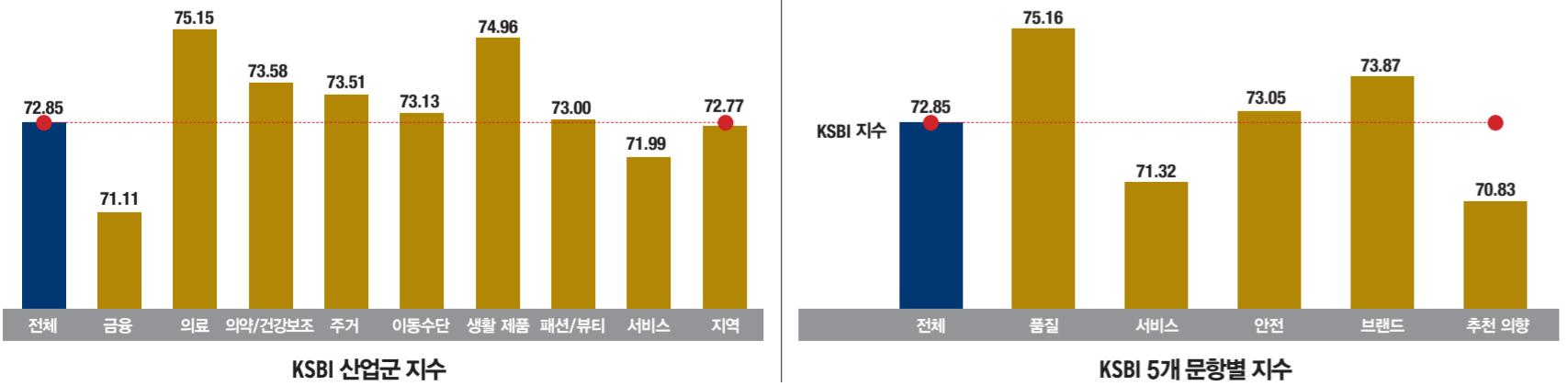


고령화·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일반 가정에서의 소비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측면이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상품이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소비율이 높아지는 것. 이에 시니어조선과 시니어파트너즈는 시니어 상품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의미 있는 지표로 2013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대상을 조사·선정했다.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브랜드 만족도를 의미하며, 이는 곧 소비자로부터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상품만이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데 근거를 둔 조사다. 조사 방법은 사전 기초 조사를 통해 각 부문별 업체를 선별하고, 최종 후보 업체를 확정한 후 해당 상품을 사용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전문 컨설팅 기관과 시니어조선이 공동 개발한 KSBI 지수를 바탕으로 금융·의료·패션/뷰티 등 9대 산업군 119 업체에 대한 평가가 2012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다. KSBI 지수란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지수(Korea Senior Brand

Index)의 약자로 시니어 상품에 대한 품질·서비스·안전·이미지·추천 의향 등을 소비자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지수화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가치 척도를 나타낸 것이다. KSBI 분석 결과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대상의 2013년 KSBI 산업군 지수는 100점 만점에 72.85점이며, 산업 부문별로는 의료 부문이 75.16점으로 가장 높고, 금융 부문이 71.32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대상의 5개 문항별 지수를 보면 품질(75.16)·브랜드(73.87)·안전(73.05)은 지수가 높은 반면, 서비스(71.32)·추천 의향(70.83)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각 제품별 소비층의 거주 지역·분포·소득·직업 등 소비자 성향 분석을 함께 진행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층에서도 향후 시니어 산업의 방향성을 짐작하고 관련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참고할 만하다.

2013 대한민국 시니어 브랜드 대상 업체는 홈페이지(www.senioraward.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ECIALIST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시니어 시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재무·비재무 분야를 막론한 전반적인 교육을 발판으로 시니어 시장을 적극 파고든다는 복안이다. 그 선두에 선 이들이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 은퇴준비학교-양코르스쿨 은퇴설계 전문가과정에 참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권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을 대폭 늘려가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강연과 상담 프로그램을 잇따라 진행하는 것만 봐도 그 분위기를 알 만하다. 직접적으로 은퇴 세대를 상대하는 은퇴연구팀을 비롯 은행 내 다양한 부서가 시니어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은행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전략이나 상품관리전략 등 자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경우에 따라 우수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그들의 자산관리를 돋기도 한다. 그런 이들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은퇴 세대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분위기에서 어찌면 당연한 일. "시니어들을 포용함으로써 시장의 변모를 확대하려는 것이죠. 약 3년 전부터 은퇴와 관련한 업무가 급격히 늘었고, 그에 발맞춰 저희도 별도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양코르스쿨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이상무 차장의 말이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15명이 전원 참여한 은퇴준비학교-양코르스쿨 제1기 은퇴설계 전문가과정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주거·건강·직업 등 은퇴 준비를 위한 8대 영역을 폭넓게 접경하는 계기가 됐다. 이 차장은 "전문적인 시각으로 각 분야를 파고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시니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산업 전반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라고 평한다. 나아가 이 차장은 시니어 관련 교육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시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아직은 시니어 산업이 초기 단계라 비재무, 즉 은퇴 이후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전무한 상태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없어요. 노인학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국민 전체가 노인이 되는 시대가 올 테니까요. 학계에서부터 먼저 기초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 같은 금융전문가들도 활동하기가 한층 편해질 텐데요."



다. 하지만 금리는 그다지 중요치 않으므로 비과세 상품을 택할 것. "이 모든 것에 앞서 먼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매월 필요한 생계비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폭이 달라지겠죠." 현재 신한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는 입사 연도나 급여 등을 따져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산출하고 각 연금별 예상 수령액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NOTICE

은퇴준비학교
양코르스쿨

조선미디어그룹을 교육법인 조선에듀케이션과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 시니어파트너즈는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은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은퇴준비학교-양코르스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의 은퇴 준비 교육이 재무 교육 일변도였던 데 반해 은퇴준비학교-양코르스쿨은 노후에 필요한 재무 및 비재무적인 교육과정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최근 5년간 실시한 시니어 트렌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콘텐츠 전반을 디룬다. 은퇴 후 30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개인이나 고객관리가 필요한 기업의 임직원 참여를 기다린다. 문의 조선교육문화센터(1661-7833)

FINANCE

2013

금융전문가 3인이 말하는
시니어
자산관리
키워드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심한 투자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도해야 한다.
은퇴 연령이 앞당겨지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이즈음, 꿩크빛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법을 소개한다.



조진희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센터장
은퇴 후 자산관리의 성공 비결은 저축과 투자의 연결
은퇴 후 자신을 늘려가는 데 저축만큼 중요한 것이 투자다. 정기 소득에서 소비를 최대한 줄여 자산을 모으는 게 저축이라면,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금을 지출하는 것. 저축한 자금을 투자로 계속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은퇴 후 자산관리의 성공 비결이다.

모든 투자는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에 맞는, 그리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주식시장이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설 때는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설 때는 투자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지나친 안전자산 선호로 위험자산 비중이 많이 축소된 상태이므로 2013년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주의할 만하다.

투자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금 손실 위험은 분산 투자(포트폴리오), 장기 투자,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 투자기간을 장기로 가져간다면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안전자산의 수익률을 상회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100-나이'는 위험자산에 대한 적정한 투자비중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투자법칙이다. 이는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비율만큼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이나 투자기간 3년 미만의 적립식 펀드 같은 단기 투자에 익숙해 있는데, 은퇴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와 더불어 위험자산에도 분산 투자해야 한다.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소장
소득절벽(Income Cliff), 가교연금으로 건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54세. 미국·프랑스·독일 등에 비해 적개는 7년, 많개는 10년 이상이나 빠르다. 더욱이 직장인들이 노후를 기 pewnością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은퇴가 무엇인가? 직장에서 물러나면 할 일은 물론 소득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만약 50대 초반에 은퇴한 후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무려 10년 이상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미국 경제의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빗대어 소득절벽(Income Cliff)이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다. 세금이 크게 늘어나거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온다고 해서 재정절벽이다. 소득절벽은 은퇴와 함께 소득이 제로로 곤두박질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득절벽 앞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낙하산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이때 좋은 낙하산은 연금, 그중에서도 가교연금을 말한다.

'가교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고안된 상품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맞춤형이다. 은퇴와 동시에 미리 계획된 일정한 현금흐름(Cash Flow Smoothing)을 만들 어줌으로써 은퇴자들의 연착륙(軟着陸), 즉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아직 은퇴가 상당 기간 남은 40대의 경우 적립식 가교연금, 50대는 거치식 또는 3~5년 적립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박형수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
불가상승 주목하고 유동성 확보에 나서라

시니어 자산관리의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물가상승 대비와 유동성 확보로 정리할 수 있다. 최근 연 2%대의 예금 상품이 출시되는 등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기예금 같은 안정형 자산만으로는 장기간 물가상승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100세 시대 같은 장수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금융 투자상품을 활용한 투자활동을 동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금융 투자상품이라고 하면 고위험·고수익의 상품으로 여기기 쉬운데 자수형 주기연계증권(ELS)이나 해외 채권형 펀드와 같이 시중금리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 위험은 낮춘 중위험·중수익의 상품들도 있다. 이를 이용해 연 2~3%의 수익률을 낸다면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노후 자산관리에 효과적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동성 확보, 즉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다. 은퇴 후 월급 대신 필요한 생활비를 규칙적으로 공급해줄 연금 지급 상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월 지급식 ELS나 월 지급식 펀드와 같은 연금형 금융 투자상품에 눈을 돌려볼 것을 권한다. 금융소득 종합과 세 대상이 되는 고액 자산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COMMUNITY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부모님에게
친구를 만들어 드려라

흔히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따지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을 으뜸으로 친다.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곧 복된 삶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반면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효에 대한 개념이 우리처럼 강하지 않다. 그렇다고 서구인들이 부모 돌보기를 등한시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니어케어(senior care, 어르신 돌봄) 산업 국가이다. 무엇이든 산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나가는 나라답게 부모님을 돌보는 일도 산업의 한 축이 됐다. 미국 고령사회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n an Aging Society)에 따르면 70세 이상 미국인 5명 중 2명은 일상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당수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어, 부모를 제대로 모시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미국은 부모와 자녀 모두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다. 결국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라도 부모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시니어케어 서비스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시니어케어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까? 고객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이하지만, 단순화하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모든 돌봄의 영역이 해당된다. 모든 서비스는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에서 제공되며, 각 사업장에 소속된 케어기버(caregiver, 어르신 돌봄 전문가)가 자녀를 대신해 어르신을 돌본다.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체적 지원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활동 보조를 한다. 목욕



도움, 이동 보조, 심부름, 간단한 마사지, 식사 준비, 투약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정서적인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모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말벗이 돼 드린다. 또 취미·종교 생활을 함께 해 어르신들이 자녀에게서 만느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치매와 같이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케어 서비스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비스 비용은 적지 않다. 일주일에 2~3일 정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00달러(한화 기준 약 110만 원) 내외가 청구된다. 서브 프리임 사태 이후 위축된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하지만 서비스 고객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세계 1위의 시니어케어 기업 흄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이하 흄인스테드)는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 2010년 7억9천만 달러, 2011년 9억1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2012년에는 10억 달러(한화 기준 약 1조1천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 흄인스테드 외에도 규모 있는 시니어케어 프랜차이즈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니어케어 서비스 전체 시장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흄인스테드는 미국 등 북미 지역 내에 7백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천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6만5천 명의 케어기버가 전세계 1백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연간 4천5백만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수치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2000년 일본에 첫 해외 프랜차이즈를 개설했으며, 드일·호주·네덜란드 등 총 16개국에 진출한 상태이다. 국내에는 2008년, 흄인스테드의 한국 법인 흄인스테드코리아가 설립됐다. 국내에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부모와 따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니어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다. 문의 02-3218-6243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블루 마운틴 보이스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효과가 있다. 듣는 음악은 물론이거나 지인들과의 합주는 그 효과가 배가 된다. 블루그래스 음악을 하는 블루 마운틴 보이스(Blue Mountain Boys) 역시 그러한 효과를 똑똑히 누리고 있다. 블루그래스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음악 장르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컨트리 앤드 웨스턴 음악 양식을 말한다.

블루 마운틴 보이스는 2004년 8월에 결성된 아마추어 밴드다. 기타·도브로·만돌린·베이스·피드 등 5인조로 구성돼 있으며, 멤버 전원이 50~60대 시니어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나 직업은 다르지만 블루그래스 음악이 좋아서 함께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용인에 위치한 '블루그래스 하우스'에서는 블루 마운틴 보이스의 정기공연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웨스턴 무비가 연상되는 흥겨운 리

듬과 멜로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전문 뮤지션에 비하면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음악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끄운 에너지를 쏟게 했다.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 역시 같은 나이 또래들이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블루그래스 음악이 어색할 만도 한데, 이들 모두 서로 눈을 맞추고 어깨를 들썩인다. 요즘 음악처럼 화려하고 자극적이지 않지만 관객과 눈을 맞추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매력에 모두 동감하는 눈치다.

이날 블루그래스 하우스에서는 블루 마운틴 보이스 외에도 다양한 밴드들이



INFOPACK

눈에 띄는 1월 소식

새해를 웃으며 시작하게 할 몇 가지 소식.

그러나 모르고 지나갔다간 첫날부터 후회한다.

Temple Stay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개사년 새하는 고즈넉한 산에서 맑은 기운을 받으며 시작하는 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해님이와 해맞이를 비롯해 소망 기원, 타종 체험 등 각 산사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한가득이다. 대구 동구 파계사에서는 새해로 넘어가는 밤 12시 제야의 종을 타종해볼 수 있고,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는 템플스테이에 앞서 29일 음악회와 함께 명사의 강연이 열린다. 경기 양평 용문사에서는 천년 은행암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과 함께 사찰 음식 만들기 시간이 운영된다. 강원 속초 신흥사에서는 내설악의 권금성에서 해맞이를 볼 수 있으며, 강원 평창의 월정사에서는 오대산의 정자를 빙을 수 있다. 강원 인제 백담사에서는 동해 바다에서 꿈의 해돋이를 볼 수도 있다.

문의 02-2031-2032



Car 주행은 계속된다

BMW 뉴 7시리즈의 활기찬 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출시 전 구매 대기 고객이 500명을 넘어서 만큼 큰 관심을 모은 BMW 뉴 7시리즈는 특유의 차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다 우아한 느낌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인테리어와 내장재는 더 고급스러워졌다. 새롭게 디자인된 기죽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함을 유지하고, 추가로 적용된 방음재는 주행 소음을 최소화해 이누스함을 선사한다. 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 등을 통해 연료 효율을 개선하고, 모든 소재를 첨단 기술로 협력해 이전 모델에 비해 차체 강도는 60%, 비틀림 강도는 20%가량 향상시켰다. 문의 080-269-2200



Audio Amplifier 전설의 오디오 앰프

오디오 마니아들은 주목! 세계에서 가장 작고 정밀한 진공관 앰프를 만들어내는 스위스의 오디오 브랜드 나그리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전설의 진공관 앰프 300b 튜브가 장착된 인터 앰프 '300i'를 출시했다. 전 세계 하이엔드 진공관 앰프 중 가장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은빛 컬러의 마감을 자랑하는 300i. 노브(knob)를 조절할 때는 특유의 절도감과 부드러움이 손끝에 전해진다. 이 겨울 나그리의 300i와 함께 추억을 쌓아볼 것. 문의 02-516-9055



Champagne

샴페인 거장의 가장 강렬한 작품
샴페인의 거장 크루그가 또 한 번 저력을 과시한다. 밀레니엄 첫 빈티지 '크루그 빈티지 2000'을 통해서다. 크루그 빈티지 2000은 지금까지의 크루그 빈티지 가운데 가장 강렬한 샴페인 100% 소문이 자리하다. 크루그 빈티지 2000이 탄생한 2000년은 달다가 이내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풍이 휘몰이치는 극적인 기후가 인상적인 해였다. 하지만 수확은 풍작이었고 포도는 놀라울 정도로 기름쳤으니, 2000년의 수확물을 가리켜 전문가들은 '격장적 탐닉(Gourmandise Orageuse)'이라 불렀다. 강렬한 황빛 컬러의 크루그 빈티지 2000은 캐리엘, 누가, 헤이즐넛 향과 오븐에서 갓 구운 따뜻한 페이스트리, 시트러스 과일, 우아함이 오래 지속되는 리임 제스트 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하 셀러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낸 크루그 빈티지 2000, 마침내 그간을 발휘할 시간이다. 가격은 40만원대. 문의 02-2188-5100



Refreshment 추억의 홈메이드 단팥죽

미뜻한 단팥죽 한 그릇 생각나는 계절, 파크하얏트서울 '더러운지가 얼어붙은 물을 녹여줄 홈메이드 단팥죽을 준비했다. 일체의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전남 영암의 유기농 팥으로 만든 건강식이다. 여러 번 삶아 쓴맛을 없앤 팥을 믹서기에 갈고 체에 거른 다음, 생천쌀을 넣고 다시 한 번 풀여 맛이 깊고 진하다. 설탕 대신 꿀을 침가해 지나치게 달지도 않다. 대신 꿀 본연의 고소한 맛과 풍부한 향은 최대한 살렸다. 더러운지 단팥죽은 전통 단팥죽, 한라봉 단팥죽, 딸기 단팥죽 등 3종으로 취향에 따라 골라 먹볼 수 있다. 가격은 2인 기준 2만4천원부터. 문의 02-2016-1205



Fur Cap 멋쟁이를 위한 털모자

스타일과 실용성을 두루 겸비한 모자를 찾고 있나? 그렇다면 브리오니를 눈여겨보자. 최고급 올 소재에 헥스 퍼가 돋보이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모자가 여기 있다. 트렌디한 멋뿐만 아니라 퍼의 디테일로 보온성이 갖춰졌다. 색상 또한 다양해 취향에 따라 고르기만 하면 된다. 모직 코트나 트위드 재킷과 함께 매치한다면 손쉽게 고급 캐주얼룩을 완성할 수 있을 듯. 가격은 108만원. 문의 02-3274-6483

CULTURE

Gallery



영혼을 사로잡는 황홀한 울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엘렌 그리모를 이렇게 평했다. '사나울 정도로 크고 냉정하고 대담하며 지적인 연주를 선보이는 피아니스트' 섬세한가 하면, 거세고 강렬하다. 극단적인 스타일을 오가며 베트벤, 슈만, 리하마니노프, 라벨 등의 레퍼토리를 모조리 섭렵한다. 그런 그녀가 2009년에 이어 3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이번 공연에서 그녀는 모차르트 소나타, 베르크 소나타, 리스트 소나타, 버르토크 루마니안 민속 무곡 등 2010년 발매했던 음반 <레조닝스>의 수록곡을 모두 연주할 예정이다. 한 해를 시작하는 달, 그녀에게서 열정의 기운을 염오오는 건 어떨까. 엘렌 그리모는 1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266-5266

Stage



미국에서 온 인상주의
인상주의가 온다. 이번에는 미국이다. '미국 인상주의 특별전: 빛과 색의 아름다움을 넘어'는 미국 인상주의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다. 90여 명의 작가 130점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에 뿌리를 둔 인상주의가 어떻게 미국적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인상주의 작품은 유풍적인 노스탤지어를 표현하는가 하면, 자극적 도시적인 풍광 속에서 미국민의 색깔을 포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면모가 유럽의 인상주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이다. 한미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3월 2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기람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의 02-501-6976

Books



1분 논어

최고의 고전 <논어> 전편을 수록하고 각 장에 담긴 공자의 메시지를 간략히 뽑은 명상집이자 자기계발서. '승패보다는 자신을 낚는 데 힘쓰라',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남을 먼저 인정하라',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와 같은 경구로 채워져 있다. 매일 한 장씩 꾸준히 읽어나가다 보면 총 20편 1만 2700자로 구성된 방대한 논어 전체를 원독하게 된다. 삼성서적 저, 평단.

시대의 개혁가들

조광조·정동주·박제가 등 역사 속 13인의 개혁가를 선별, 그들의 과실과 업적을 두루 살펴면서 진짜 개혁의 의미를 조망한다. 개혁가들이 내세운 정책은 때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때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한편, 현실에 인식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생의 비극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포착한다. 일용원 저, 시공사.

THE TRUTH OF LIFE

페션 디자이너 이상봉이 한국 디자이너로서는 최초로 페낸 아트북. 25년간 작업한 회보·컬렉션 및 컬래버레이션 작업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속에서 디자인적 영감의 원천과 패션에 관한 철학 또한 엿볼 수 있다. 이번 책은 500권 한정판으로 출시되며, 1월 중순까지 신사동 이웃랩에서 관련 전시가 진행된다. 이상봉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듯. 이상봉 저, 교보문고.



사랑과 죽음에 대한 숭고한 성찰
<아무르>는 아내와 나자 시로에게 한 악속을 담은 작품이다. 30년간 나와 함께 해준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친영화제 황금촬영상을 수상한 직후 <아무르>의 감독 미카엘 하네케는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아무르>는 그의 소감만큼이나 감동적이다. 우리에겐 피아니스트, <하얀리본>으로 친숙한 독일 영화의 거장 미카엘 하네케가 일흔의 나이에 만든 신작 <아무르>는 노년의 삶과 사랑을 그린 영화다. 평생 동안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하루 이침에 반신불수가 된다면, 사랑은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음악가 출신의 노부부 조르주(장 루이 트랭팅)와 안느(에마뉘엘 리바).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안느가 미비 증세를 보이며 그들의 삶은 예기치 않은 변화를 맞는다. 조르주는 안느를 한신적으로 돌보지만,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가는 아내 곁에서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아무르>는 사랑과 죽음에 대한 숭고한 성찰을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영화 속 이야기는 삶의 끝자락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릴 수 있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더욱 절澈하게 다가온다.

Cinema



©영동미디어

액션 기대 이상의



또 다른 프리미엄의 시작
파사트 가솔린 모델 출시!

앞서가는 도전만이 퍼포먼스를 완성한다 _ The new Passat

세단이기에 어쩔 수 없는 퍼포먼스의 한계를
누군가는 뛰어 넘어야 했기에 오리지널 독일 세단
파사트가 절정의 퍼포먼스로 당신을 찾아갑니다
이제 당신의 프리미엄에 퍼포먼스를 더하십시오

Your Next Premium

The Original German. Volkswagen

The new Passat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 혜택1. 나에게 딱 맞는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 혜택2. 신차교환프로그램 적용
- 혜택3. 4~5년차 소모성 정비 서비스 쿠폰 지급



Volkswagen. Das Auto.